

# 총선 앞두고 경쟁력 조사 지역 정가 '긴장'

### 민중당, 광주·전남 선거구별 인지도·의정활동 등 다선 의원들과 일대일 대결구도 질문...입지자들 촉각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경쟁력 조사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공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중앙당은 내년 총선에서 호남에 나설 유력 입지자들의 경쟁력을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26일 민주당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전남부터 이날까지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당원들을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유력 출마예정자들의 인지도 등을 묻는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은 의정 활동을 물었고, 현역이

없는 곳은 경선에 나설 유력 후보자의 인지도와 정당 지지도를 조사하는 내용이었다.

선거구마다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상대 후보들과의 경쟁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에 탄탄한 기반이 있는 바른미래당,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민주평화당 소속의 다선 중진 의원들과의 일대일 대결 구도도 질문하는 등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설 출마 예정자들의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을 앞두고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당 차원의 여론조사라고 하지만, 경선 레이스에 뛰어든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가운데 일부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자의 경쟁력이 예상보다 저조한 결과가 나올 경우 일부에서는 '전략공천'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뒷발 탈환을 넘어 호남 석권을 노리는 민주당이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구에는 전략공천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호남에서 참패한 원인 중 하나로 민심과 동떨어진 전략공천을 수시로 입삼았다는

점이 꼽히고 있어 전략공천은 단지 소문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이해찬 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호남지역에는 전략공천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만큼 또 다시 전략공천에 나설 경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앙당이 쉽게 전략공천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보통 정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후보 면접에 앞서 인지도와 경쟁력을 확인하는 통상적인 여론조사가 있었고, 이번 여론조사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략공천을 위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들어앉은 한국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자 들어앉아 있다.

/연합뉴스

## 조국 "사법개혁 완수 최선" ... 대정부질문 '청문회 2라운드'

### 수사팀 통화 논란에 조국 "아내 배려해달라 취지"

26일 개최된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은 예고된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2라운드'를 방불케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집중적으로 비난하면서 조 장관 방어를 나선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과 관련한 각종 의혹과 수사 상황을 따져 물으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은 조 장관이 신임 국무위원 자격으로 인사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면서부터 들쭉였다. 조 장관이 "국민의 열망인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의 무

거운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신임 국무위원으로서 인사에 나서는 동안 야당 의원들은 "범법자", "이중인격자" 등 야유를 보냈다. 본회의장 좌석마다 '조국 사퇴' 손팻말을 붙인 한국당 의원들은 의자를 180도 움직여 조 장관으로부터 등을 돌리기도 했다.

한국당의 첫 질문자로 나선 권성동 의원은 조 장관을 연단으로 부르면서 '장관'이라는 표현 대신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오라'고 말했다고, 김태을 의원은 질의 내내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고 호칭했다.

권 의원은 태광그룹이 설립한 일주학술

문화재단 장학금으로 미국 유학을 다녀온 조 장관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 당시 쓴 탄원서를 공개하며 추가 의혹 제기 의 신화탄을 쏟아 올렸다. 이어 주광덕 의원은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 팀장과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조 장관이 "네. 있다"고 인정하면서 본회의장은 술렁였다. 수사 지휘가 아니라 처의 상태를 배려해 달라는 취지의 통화였다는 취지로 조 장관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예기치 못한 조 장관의 '압수수색 검사와의 통화' 인정으로 장내는 아수라장이 됐다.

날 선 공방과 고성·야유가 오가던 본회의장은 한국당이 조 장관의 검사 통화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회를 요청하자 더욱 달아올랐다. 민주당의 반대에도 사회를 보던 이주영 부의장은 30분 정회를 선포했다. 대정부질문이 시작한 지 2시간 30여분 만이었다.

한편 야당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도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추천권을 행사하면서 조 후보자 일가의 비리 의혹 등을 보고받았나"라고 물었고, 이 총리는 "보고받지 못했고 저 자신은 짐작하지 못했다"며 "진실이 가려지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꼼수 발의 실적 제외...5대 비위 '감점'

### 민주, 의원 평가기준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실시하는 국회의원 최종평가 기준을 26일 공개했다. 의원들은 평가 결과 하위 20%에 속하면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20% 감산' 페널티를 받는 만큼 최종 평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의 송갑석, 전남의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평가 대상이 아니다. 또 전남의 이개호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전남도당 위원장을 지낸 등 가점 사항이 많아 하위 20%에 포함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평가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 의원 평가를 위한 실무준비를 할 보좌진을 대상으로 최종평가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공개된 배점 등 평가 기준은 크게 4가지로, 의정활동(34%), 기여활동(26%), 공약이행활동(10%), 지역활동(30%)이다.

먼저 '의정활동'의 경우 입법 실적과

각종 위원회 활동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다. 입법 실적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친 법안 발의는 평가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입법 실적을 쌓을 목적으로 기존 법안의 문구만 고쳐 무차별 발의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것이다. 대표발의, 본회의 처리, 당론 채택 법안 발의 실적(7%) 등을 반영하고 의원총회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6%)도 반영할 방침이다.

'기여활동'에 대한 세부 항목은 공직 윤리 수행 실적, 국민소통, 당정 기여, 수행평가 등이다. 윤리심판원에 경정계를 받았을 경우 10점, 당직 정직 이상 징계를 받았으면 30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기소된 경우 금과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20점을 감점한다. 다만 5대 비위(성희롱·감점·음주운전·금품수수·채용비리)의 경우 형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만으로 감점된다. 최종평가는 오는 12월 23일 완료되며,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임동욱 기자 tuim@

## 이해찬 "호남은 경선이 원칙"

### 의원들과 오찬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안팎에서 호남지역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6일 호남지역 현역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내년 총선에서) 호남 지역은 경선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오찬에 참석했던 모 의원은 "이 대표가 먼저 내년 총선 공천 얘기를 꺼냈다"며 "호남에서는 경선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기존의 경선 구도를 깨는 새로운 후보들의 투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선이 원칙'이라는 말은 구두선에 그치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찬에서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

에 오른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 트랙에 태웠으나 바른미래당이 분열 위기에 있고 평화당은 분당된 상황이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이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타당 출신 의원들의 영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현재 무소속인 손금주(나주·화순), 김경진(북구갑) 의원의 민주당 입당은 사실상 어렵게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찬에는 광주 송갑석, 전남 이개호·서삼석, 전북 이춘석·안호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시민단체, 나경원 딸 성적특혜 의혹도 고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이 성신여대에서 '성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나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딸의 성신여대 입학, 이들의 미국 예일대 입학 관련 의혹으로도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26일 오전 나 원내대표를 위하여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운동본부는 2012년 성신여대에 입학한 나 원

내대표 딸의 성적이 2013년 2학기부터 2015년 2학기까지 8회에 걸쳐 정정됐는데, 이는 나 원내대표가 2013년 11월 '무릎을 굽히면 사람이 보인다'는 책에서 장애인 학생에 대한 별도 성적 부여를 언급한 직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도 교비 전용과 학력 위조 의혹으로 고발했다. 최 총장이 자신의 학력을 미국 워싱턴대학 신학대학 교육학 박사로서 기재하고, 경력에 미국 포스틱스침례교회 부목사를 기재했으나 허위라는 것이다. /연합뉴스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전국임야**  

# 샵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영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전대) 융복합인상 수상
- 공무원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 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발달경영관리사, 부동산양양상담사, 부동산관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도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립니다

▶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 강 의 료 | 210,000원(15주) \*선착순 50명

▶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 230-7700-2(010-5613-1808)